

# 유통가, 쇼핑지원금 풀어 잠자는 소비심리 깨운다

이마트, 최대 1만원 상품권 지급  
총 규모 30억... 생필품 행사 병행  
롯데마트, 엘포인트·카드고객에  
4만7000원 상당 '주차별 쿠폰'

G마켓·옥션 '상반기 결산 어워드'  
마트·뷰티 등 11개 카테고리 대상

대한민국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유통업체가 '쇼핑지원금' 카드까지 빼들고 인간 힘을 쓰고 있다. 올해 내수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활동을 꺼리게 되면서 소비활동 또한 크게 감소했다.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정부지침이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나 싶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유통업체는 여름휴가 기간인 6~8월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해 소비심리를 활성화할 전략이다. 통상 6~8월은 여름휴가 기간으로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을 떠나 내수 소비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통업체는 틈새 소비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모델들이 이마트에서 쇼핑지원금을 소개하고 있다.



상반기 히트상품 할인전

/이베이크리아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쇼핑지원금을 톡톡히 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이마트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구매금액에 따라 쇼핑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마트는 행사기간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5000원,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총 지급 상품권 금액 규모는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마트가 전점에서 결제수단 상관없이 최대 1만원 상품권 증정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의 이번 구매금액별 상품권 지급 행사는 기존 새로 오픈한 매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전점으로 확대했으며, 행사카드로 구매 시에만 지급했던 것을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또, 최대 5000원까지만 증정했던 상품권을 이번엔 1만원까지로 금액을 높였다. 올해 6월은 작년에 비해 공휴일이 이틀이나 부족해 소비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번 상품권 행사를 준비한 것이다.

상품권 지급 외 주요 생필품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주요생필품할인 행사 기간은 6월17일부터 24일까지다.

롯데마트는 18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3만원 이상 구입한 엘포인트(L.P

OINT) 회원과 해당 카드(롯데/KB/국민/삼성)로 결제한 고객에게 각 최대 4만 7000원 상당의 '주차별 쿠폰 2종'을 증정한다.

엘포인트 회원은 주중에 5만원 이상 구입하면 3000원 할인을, 주말에 8만원 이상 구입하면 5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로 3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은 주중에 5만원 이상 구입시 5000원 할인을, 주말에 8만원 이상 구입하면 8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계산대에서 해당금액 결제 즉시 수령 가능하며,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고객은 롯데마트의 서비스데스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에서 받을 수 있

다. 쿠폰은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할인 행사도 마련됐다. 이베이크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상반기 결산 마트&뷰티 베스트 어워드'를 진행, 최대 69% 할인된 가격에 상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총 11개 마트, 뷰티 카테고리 대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선식품 ▲가공식품 ▲건강식품 ▲커피/음료 ▲생필품 ▲바디/헤어 ▲생활용품 ▲주방용품 ▲문구/사무용품 ▲건강/의료용품 ▲기저귀/분유 등이 포함된다.

우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총 9개의 베스트 상품을 소개하고, 정가가 대비 최대 69% 할인가에 판매한다. 또 11개의 마트, 뷰티 카테고리 별 인기 상품도 8개씩 선보인다. 이밖에도 각종 식품과 음료, 건강식품, 생활용품, 육아용품 등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G마켓과 옥션에서 '마트뷰티 상반기결산'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이 취소되고 이로 인해 소비심리까지 위축됐다"며 "쇼핑지원금과 할인 행사를 이용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함부르크항에 도착하는 HMM 알헤시라스호.

/해수부

## '선박왕' HMM 알헤시라스호, 첫 임무 완수

런던서 출항 내달 22일 부산항 입항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인 HMM(현대상선의 새이름) 알헤시라스호가 첫 임무를 완수하고 귀항 길에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알헤시라스호가 극동아시아 수출화물을 유럽 주요국에 운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지시간 15일 18시 유럽의 최종 기항지인 런던게이트웨이항을 출항했다고 16일 밝혔다.

알헤시라스호는 지난 4월25일 청도항을 시작으로 부산항, 중국 닝보·상해·옌토펜항을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벨기에 앤트워프, 영국 런던 등 유럽의 주요 항만에 기항했다.

귀항길에 오른 알헤시라스호는 싱가포르, 중국 닝보·상해·청도를 거쳐 7월 22일 마지막 기항지인 부산항에 입항하면 극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89일간의 항해를 마치게 된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인 알헤시라스호의 이번 여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 기항지에서도 큰 화제를 낳았다.

첫 기항지인 중국 청도에서는 선박의 왕이란 뜻의 '선왕(船王)'이란 별칭을 얻으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중국 언론들은 청도항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의 첫 번째 선적항이 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부산항에서는 무려 7300톤에 달하는 연료 공급을 위해 급유선 2척을 연결하는 급유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5월8일 아시아의 마지막 기항지 중국 옌토펜항에서는 1만9621TEU를 싣고 출항하면서 세계 최대 선적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극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주간단위 전체 물동량 20만TEU의 약 10%에 해당한다. 1호선인 알헤시라스호에 이어 출항한 2호선 'HMM 오슬로'와 3호선 'HMM 코펜하겐'도 2만4000TEU급 선박의 통상 최대 선적량인 1만9300TEU를 넘기며 3연속 만선의 쾌거를 달성했다.

/한용수 기자 hys@

## "기업 유동성 지원... 실물경제 괴리 줄여야"

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생산부문에 유동성 돌리지 않으면  
실물경제 불균형, 자산가격 버블"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지원을 강화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를 줄여 나가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주가는 연 초 수준으로 회복되고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감소하고, 수출과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1분기 수출 증감률은 1.7%로 올 4월(25.1%)과 5월(23.7%)에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같은기간 취업자수 증감률도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28.8%로 4월과 비교해 18.8%포인트가 감소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시장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기존의 우량기업과 금융시장 내에만 머무르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게까지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고 있다"며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금융과 실물경제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자산가격의 버블 등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실물경제회복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금융지원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금융회사가 다양한 자금조달원에 접근이 가능한 만큼 리스크 관리와 기업금융의 노하우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도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자동차산업 상생협력특별보증, 기업자산 매각프로그램, 자산유동화증권(P-CBO) 등을 통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중소·가계신용대출 영향 은행 연체율 ↑

4월 원화대출 연체율 0.40%  
전월 말 대비 0.01%p 올라

국내은행의 대출연체율이 올라 갔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 신용대출 위주로 연체율이 높아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0%로 전

월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1조4000억원 규모로 전월과 비슷했지만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1조1000억원으로 감소해 연체율이 상승했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50%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 대비 0.14%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7%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중소기업 0.74%, 개인사업자대출 0.36%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5%포인트, 0.03%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0%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48%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